

아마쿠사의 사키쓰 취락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 관련 유산



세계문화유산 후보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 관련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대항해 시대에 프란시스코 자비에르에 의해 일본에 전해진 크리스티교는 번영, 혹독한 탄압과 250년간의 잠행, 그리고 기적의 부활이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역사를 겪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교의 중심지였던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에는 크리스티교 관련 유적이나 취락, 성당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후보인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 관련 유산’은 금교 시대부터 크리스티교로 복귀할 때까지 은밀하게 신앙을 계승하여 일본만의 독특한 크리스티교 신앙을 길러낸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입니다.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은신 기리시탄 (크리스천) 관련 유산’ 자산 위치도



【토막 지식】 세계유산이란 무엇일까요?

세계유산은 미래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적, 자연, 풍경 등 세계적인 보물을 말하는데 그 가치와 특성에 따라 3종류로 분류됩니다. 그럼 세계유산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알아볼까요?

문화 유산

건물이나 유적 등 인간이 만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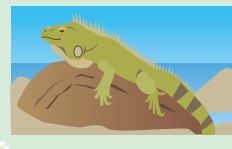
●스핑크스 (이집트)



자연 유산

생물이나 풍경 등 자연의 것.

●갈라파고스 제도 (에콰도르)



복합 유산

‘문화 유산’과 ‘자연 유산’의 특징을 함께 지닌 것.

●마추픽추 (페루)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 관련 유산은 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등재가 되면 이러한 대표 사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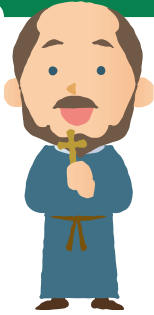
어떻게 사키쓰가 세계유산이 되나요 ?

사키쓰에서는 마을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사키쓰 천주당’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은 혹독한 금교 정책 아래서 일본의 전통 종교와 크리스티교가 공존하면서 신앙을 이어온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의 취락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을에 어떤 역사와 문화가 남아 있는지 함께 보러 갈까요?



사키쓰란 어떤 마을인가요?



사키쓰는 전국시대(15 ~ 16세기) 이후에 형성된 어촌 마을로 크리스티교 전래 시기(16세기)에는 포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토지의 형태는 에도 시대(17 ~ 19세기)부터 크게 변한 것이 없으며 취락의 주요 도로, 해안선을 따라 돌로 축조한 호안 시설, 신앙의 장소 등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중심 거리에는 사키쓰 스와 신사와 가톨릭 사키쓰 천주당이 있어 종교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토막 지식 사키쓰에서는 좁은 땅 안에서 살기 위한 생활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가케’

생선 정리 등에 사용 되는 작업장.



‘도야’

바다로 나가기 위한 골목길.

✠ 크리스티교 포교 ✠

루이스·드·알메이다 수도사가 가와치우라에서 포교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사키쓰에서는 순식간에 크리스티교가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사키쓰는 ‘사시노쓰(Saxinoccu)’ 라고 불렸는데 선교사나 상인들에게 중요한 항구로 인식되었습니다.

크리스티교가 전파되는 한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크리스티교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염려하여 바테렌(선교사) 추방령을 내려 선교사들의 국외 퇴거와 포교 금지를 명하고 1597년에는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서 26명의 신자 등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남만 무역이 계속되기를 원했기에 철저한 금교가 시행되지 않아 선교사들은 은밀하게 포교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화려한 포교의 시대에서 금교와 탄압의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루이스·드·알메이다 기념비



메달리온
(아마쿠사 크리스천관 소장)

✠ 기리시탄(크리스천) 탄압 ✠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시작된 금교 정책은 에도 막부에 의해 강화되어 1614년에는 마침내 금교령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선교사의 국외 추방, 교회 파괴, 기리시탄(크리스천)에 대한 혹독한 탄압과 색출이 가해져 수많은 신자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나가사키·아마쿠사 지방에서는 1617년부터 1644년까지 75명의 선교사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각지의 기리시탄(크리스천)들은 은밀하게 신앙을 이어갔으며 막부의 색출이 한층 더 심해지는 가운데, 1637년 기근과 과중한 세금에 시달린 나가사키 시마바라와 아마쿠사의 백성들이 무장봉기를 일으킵니다.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 이 발발한 것입니다. 2만명이 넘는 백성들은 하라성에서 농성전을 벌였으나 88일간의 전투 끝에 여성과 어린이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쿠사 시로 진중기
(아마쿠사 크리스천관 소장)



◆어떤 탄압이 있었나요?

매년 모든 주민들에게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밟지 못하는 사람은 기리시탄(크리스천)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발각된 기리시탄(크리스천)은 불교로의 개종을 강요당했습니다. 현재의 사키쓰 천주당이 세워진 자리에 촌장의 사택이 있었는데 그 앞마당에서 에부미가 행해졌습니다.



에부미

‘에부미’와 ‘후미에’의 차이점

에부미는 밟는 ‘행위’를 말하며 후미에는 밟기 위해 준비한 ‘물건’을 말합니다.



후미에

은밀하게 신앙을 이어온 잠행 시대



막부에 의한 혹독한 탄압 속에서 기리시탄(크리스천)들은 겉으로는 불교도나 신사의 구성원이 되어도 세레나 오라쇼(기도문)를 은밀하게 전승하여 금교가 해제될 때까지 250여 년 동안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사키쓰 은신의 특징

사키쓰의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이 의지한 신앙 도구는 메달이나 묵주, 안쪽의 모양을 성모 마리아로 빚댄 전복이나 키조개 같은 해산물, 일본 거울 등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백접 패 자개로 만든 진귀한 메달도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된 거울과 패류

기동 속에 감춰진 메달

❖이불(異佛) 단속과 ‘아마쿠사 구즈레’

지금껏 은신해 있던 기리시탄(크리스천)들도 마침내 각지에서 발각이 됩니다. 사키쓰에서는 1805년 크리스마스에 쇠고기나 물고기를 제단에 바친 사실이 발미가 되었습니다. 관아의 관리는 사키쓰 스와 신사에서 이불(異佛) 단속을 벌여 경내에 함을 설치해 자진해서 신앙 도구를 버리도록 지시하고 신앙 도구를 버린 기리시탄(크리스천)은 오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죄 방면하였습니다. 그때 조사받은 신자들은 어디다 참배하더라도 자기들은 ‘안멘리유스=아멘데우스’라는 주문을 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에, 사키쓰, 이마토미, 다카하마에서 총 5,205명, 사키쓰 주민의 약 70%인 1,709명이 기리시탄(크리스천)으로 적발된 이 사건을 ‘아마쿠사 구즈레’라고 부릅니다.



사키쓰 스와 신사

크리스토티교의 부활

에도 막부 말기의 동란기에 마침내 일본은 미국의 강한 요구로 개국을 합니다. 나가사키에는 외국인 거류지가 만들어지고 1864년에는 오우라 천주당이 건립됩니다. 오우라 천주당은 나가사키 우라카미 마을의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 여남은 명이 찾아와 프티장 신부에게 신앙 고백을 한 ‘신도 발견’의 무대입니다. 이러한 ‘신도 발견’의 소식은 모진 박해로 일본의 신도는 명맥이 끊겼을 것이라고 생각한 유럽 국가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금교 상태였기 때문에 고백한 기리시탄(크리스천)들은 개종을 강요당하는 등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오우라 천주당

이런 탄압에 대해 서양 국가들의 강력한 항의가 잇따르자 메이지 정부는 마침내 1873년 금교의 포고 게시판을 철거합니다. 탄압에서 해방된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들은 세례를 받고 가톨릭으로 복귀하여 신도들의 봉사를 바탕으로 각지에 차례차례 천주당을 건립해 나갔습니다.



❖사키쓰 천주당의 건립

사키쓰에서는 현재의 구 수도원 자리에 최초로 성당이 건립되었습니다. 그 후, 1934년에 지금의 사키쓰 천주당이 세워집니다만, 하르브 신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기리시탄(크리스천) 탄압의 상징인 에부미가 행해졌던 촌장 사택 터가 선택되어 에부미가 행해졌던 장소에 제단이 놓였습니다. 천주당 내부에는 일본에서도 보기 드물게 당초부터 다다미가 깔려 있어 일본과 서양의 문화 교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주당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수많은 천주당 건축 일에 종사한 가미고토 출신의 목수 데쓰카와 요스케입니다.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신앙지와 민속행사

에도 시대부터 주요 거리에서 거행되는 축제



이렇게 어촌 마을 안에 가톨릭 성당이 자리 잡고 서 있는 독특한 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사키쓰 마을 안이나 주변 산속에는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의 신앙 흔적이거나 성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주요 거리에서는 사키쓰 스와 신사의 예대제나 천주당 행렬 등의 행사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

사키쓰는 주민 분들이 생활하고 있으므로, 큰 소리를 내거나 길에 흩어져서 가지 마시고 절도를 지키면서 견학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토티교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이마토미



사키쓰와 인접한 이마토미도 사키쓰와 마찬가지로 크리스토티교를 받아들여 금교기에는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을 계승하였습니다. 이마토미에서는 불교나 슈겐도(修驗道) 같은 산악 신앙을 도입하여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 냈습니다. 취락에는 성수를 길는 샘터를 비롯해서 '아마쿠사 구즈레' 사건으로 철거된 기리시탄(크리스천) 묘지나 신앙지, 일본 거울 등의 신앙 도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연으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는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의 풍습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가 되어 크리스토티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후에도 이마토미의 주민들은 가톨릭으로 복귀하지 않고 불교를 신앙으로 하면서 은신기의 크리스토티교를 믿는 '가쿠레 기리시탄(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우만테라사마



성수를 길는 샘터



정월 장식 (사와기)

❖기리시탄 : 크리스트 교도. 라틴어.

❖기리시탄 다이묘: 크리스트 교도가 된 영주.

❖선교사: 종교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도하는 사람.

❖가톨릭: 크리스토티교의 가장 큰 교파.

❖금교 정책(금교령): 크리스토티교를 믿거나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은신 기리시탄: 금교기에 겉으로는 불교도가 되어도 속으로는 크리스토티교를 믿었던 사람.

❖가쿠레 기리시탄: 크리스토티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후에도 가톨릭에 복귀하지 않고 숨어서 크리스토티교를 믿었던 사람.

❖콜레조: 포르투갈어로 '대 신학교'의 의미. 약 420년 전에 아마쿠사가와 우라에 콜레조가 개교되어 크리스토티교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오라쇼: 기도문. 불교의 경전과 같은 것.

용 어 설 명



아마쿠사 기리시탄
(크리스토티교) 퀴즈

문제 1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은 들리지 않도록 다양한 물건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3개 중에서 사키쓰만의 특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물건은 무엇일까요?

①돌맹이 ②조개 ③잎사귀

?

문제 2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은 절이나 신사에 갈 경우, 마음 속으로 뭐라고 주문을 외웠을까요?



①안만리유스 (안만데우스)
②안멘리유스 (아멘데우스)
③라멘리유스 (라멘데우스)

문제 3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을 색출하기 위해 행해졌던 것이 에부미입니다. 그림 에부미에 사용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1페이지

기리시탄(크리스토교) 역사 연표

포교

프란시스코 자비에르가 일본에 온 것을 계기로 크리스토교는 기리시탄(크리스천) 다이묘에 의해 국내로 전파됩니다. 크리스토교의 포교와 때를 같이 하여 눈부시게 화려한 무역품이 남만 무역으로 일본에 들어오고 국제교류를 통해 서양문화가 꽃을 피웁니다.



탄압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바테렌(선교사) 추방령과 일본 26성인 순교 사건을 시작으로 크리스토교의 흐름은 급변합니다. 에도 막부도 쇄국과 금교의 정책을 강화하고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을 벌임 삼아 철저한 탄압을 가합니다.



은신

에도 막부에 의해 외국인은 국외 추방을 당하고 선교사도 사라졌습니다. 기리시탄(크리스천)들은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걸으로는 불교도가 되어도 250여 년 동안 은밀하게 크리스토교를 지켜 나갔습니다.



부활

일본의 개국과 더불어 외국인 거류지에 건립된 오우라 천주당. 그곳에서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도 발견' 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유럽 국가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으로 전해졌으며 세계 종교 역사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금교가 해제되자 신도들의 손에 의해 각지에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연 호

일어난 일

- 1549년(덴분 18년) 일본에 크리스토교 포교
- 1566년(에이로쿠 9년) 수도사 루이스·드·알메이다, 시키에 포교
- 1569년(에이로쿠 12년) 알메이다, 가와치우라에 포교
- 1591년(덴쇼 19년) 아마쿠사에 콜레조 설치



- 1614년(게이초 19년) 에도 막부에 의한 금교령
- 1637년(간에이 14년)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 발발
- 1638년(간에이 15년) 하라 성 함락,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 종결
- 1641년(간에이 18년) 아마쿠사, 막부 직할령이 됨
- 1654년(조오 3년) 기리시탄(크리스천) 금제의 포교 게시판 설치

25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은밀하게 신앙이 이어져 왔네요.



- 1804년(분카 원년) 오에, 사키쓰, 이마토미에서 은신 기리시탄(크리스천) 발각
- 1805년(분카 2년) '아마쿠사 구즈레' 사건, 4개 마을에서 총 5,205명 발각
- 1857년(안세이 4년) 에부미 폐지령 선포
- 1860년(만엔 원년) 에부미 폐지

- 1865년(겐지 2년) 신도 발견
- 1873년(메이지 6년) 메이지 정부, 기리시탄(크리스천) 금제의 포교 게시판 철거
- 1883년(메이지 16년) 페리에 신부, 오에에 천주당 건립
- 1888년(메이지 21년) 페리에 신부, 사키쓰에 천주당 건립
- 1933년(쇼와 8년) 현재의 오에 천주당 건립
- 1934년(쇼와 9년) 현재의 사키쓰 천주당 건립





Q 세계유산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A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에서 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심사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데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Q 일본에는 어떤 세계유산이 있나요 ?

A

2017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은 21곳(자연유산 4곳, 문화유산 17곳)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세계유산

①호류지 지역의 불교 기념물 ②히메지 성

③야쿠시마 ④시라카미 산지

⑤고도 교토의 역사 기념물

⑥시라카와고와 고카야마의 역사 마을

⑦원폭 돔 ⑧이쓰쿠시마 신사

⑨고도 나라의 역사 기념물 ⑩닛코의 신사와 사원

⑪류큐 왕국의 구스쿠 유적지와 관련 유산

⑫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⑬시레토코 ⑭이와미 은광과 문화경관 ⑮오가사와라 제도

⑯히라이즈미 - 불교 정토 사상을 대표하는 사찰, 정원, 고고 유적군

⑰후지산 - 성스러운 장소 그리고 예술적 영감의 원천 ⑱도미오카 제사 (製絲)

공장작과 비단 산업 유산 ⑲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⑳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 (국립서양미술관) ㉑ '신이 머무는 섬' 무나카타-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



※자연 유산 (빨간 글씨) ... 4 개소
문화 유산 (파란 글씨) ... 17 개소